

## 불어라 리눅스 열풍아



오길록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면서 영원한 정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판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거대한 MS 제국에 대항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던 차에 리눅스가 나타난 것이다. IDC보고서에 의하면 리눅스의 97년도 운영체제 전체 시장의 점유율은 6.8%에 불과하였으나, 98년도에는 17.2%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3년까지는 계속해서 매년 25% 정도로 성장하면서 다른 운영체제의 성장을 15%이하로 눌러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후손은 MS 제국에서 벗어

---

약력 : • 69~78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78~87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 87~9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96~98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소장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S/W 기술연구소 소장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눅스는 1991년 Linus Torvald 라는 대학생이 운영체제의 모체가 되는 커널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MIT의 Richard Stallman 교수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한 GNU 프로젝트에서 탄생되었다. 리눅스의 소스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제로의 진화와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주로 웹 서버, E-mail 서버, 파일/프린터 서버용 운영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는 작년 말로 1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상업용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 시스템이 서서히 출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리눅스가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Copyleft'라 불리는 소스 공개 운동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주에 대한 폭 넓은 사회적 문화적 반감을 우선 들 수 있겠다. 즉 우리는 빌 게이츠라는 Big Brother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운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개발 초기부터 웹상에 소스가 공개된 Freeware 이므로 도입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경제적 요인도 크다. 리눅스 개발 업체의 제품을 저장매체에 담아 구입하는 경우 개당 30~50불이며, 750불이 소요되는 윈도우 NT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

하다. 이 경제성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도 이어져 대표적 오피스 프로그램인 'Linux Office Sweet 99'의 경우 약 80불에 불과하나 MS Office의 경우 약 450불 수준이고, 기타 많은 프로그램이 무료이거나 이처럼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다.

셋째로 리눅스는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면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일찍이 소스가 공개된 탓에 많은 지원자들과 개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서 최근에는 고성능 서버에서도 유닉스와 맞먹는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리눅스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후 유지보수 체제의 미흡과 응용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는 리눅스 전문 공급업체의 출현과 주요 컴퓨터 업체들의 지원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

어쨌든 MS Windows NT 보다 안정되어 있으며 성능이 뛰어나고 무료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NT가 성장하는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UNIX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IBM, Oracle, Compaq, Dell, Sun, Intel등 대기업 중심으로 리눅스 표준인 LSB(Linux Standard Base) 제정 움직임이 있다.

운영체제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로는 운영체제의 안정성,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지원여부, 기업 시장에서의 채택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리눅스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려 리눅스의 이용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눅스를 통해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일본도 리눅스를 탑재한 업무용 서버를 NEC, 후지쯔 등이 선을 보이고 있고, 리눅스 협회를 발족시켰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리눅스 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이 권장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덕을 보는 것보다는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인 리눅스의 열풍이 우리 한국에도 태풍처럼 크게 불어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리눅스의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리눅스 운영 환경의 표준을 제정할 리눅스 운영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여 15년 전에 KUUG(Korea Unix User's Group)를 만들어 표준 운영체제 개발과 Unix 보급에 노력했던 필자는 또다시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서 인류가 MS 사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며, 운영체제와 같은 인류 공용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영어나 한국어처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하고 개선 개량하여 인류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 뿐만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